



과천 예찬



시형인정과 섬유사무관 이완규

과천에 살아온 지도 벌써 21년 쯤 되어 간다.

처음 과천에 이사오고 나서 5살, 7살인 두 아이들을 데리고 화창한 어느 후일에 관악산을 오른적이 있었다. 보폭이 적은 아이들과 걸느라

5분 올라가서 10분취기를 수도없이 반복한 끝에 겨우 도달한 연주암에 올라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와 약수를 돌이 마시던 기억...

쌀쌀한 이른 봄에는 청계산 기슭을 집 사람과 아이들과 같이 냇이, 죽, 민들레를 캐다가 어디가면 무엇이 있나를 대충 기억했다가 해가 바갈때마다 한 동안 찾아 다니는 추억들...

몇년 전에 발견한 산딸기가 많이 있는 장소를 말아놓고 아침,저녁으로 찾아가서 조심조심 계란을 집어내듯 따내면서 누가 따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거의 1달동안 따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보통 산딸기는 6월중순에서 7월중순까지 산속에서 볼 수가 있다...

요즘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청계산으로 밤을 주오러 가고 있다. 30분동안에 1되정도의 밤을 채울 수 있는데 산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밤을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이 얼마나 별미인지 모른다. 어느

해 인가는 주워왔던 밤을 그대로 며칠동안 집안 배란다에 종이를 깔고 그 위에 펼쳐놓은 적이 있는데 밤의 향기를 맡고 모여든 벌레들 때문에 우리 딸이 기겁을 하고 아빠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밤을 줍기만하면 생밤으로 까먹던지 삶어 먹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냉동실에 밤을 보관하였는데 육찬 냉동실을 본 집사람이 밤줍 그만 주워 오라고 꾸짖을 하던 일이 생각난다.

과천의 밤수확시기는 9월중순에서 10월중순이 되는 것을 알수 있었다.

각년 추석 연휴면 처남과 같이 청계산에서 내려오다가 음지쪽 비탈진 곳에서 자연송이와 영지버섯을 채취하여 후라이 판에 구어 먹고 차를 끓여 마시던 추억... 등등

필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혜택들을 이 도시 과천에서 누리며살고 있다.

과천의 외곽 순환 도로옆의 숲에는 보리수나무가 싱싱한 열매를 달고 있어 지나가는 길손의 눈을 잡는다.

참으로 이와같이 공기맑고 산세가 좋은 고장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해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면 단풍이 흠뻑 들어찬 배나무밭으로 달려가 낙과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집으로 사가지고 내려와 식후에 하나씩 꺼내 먹었던 기억...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될 즈음이면 과천 향교 옆 인공 수영장(골짜기 물을 가둔)에서 아이들과 같이 물장구 치면서 놀던 기억도 있다.

집사람이 간식과 애들옷을 준비하여 풀내음 맡으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던 기억

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서울대공원 안의 향긋한 장미공원을 거닐며 호수가의 평화로운 오리떼들의 먹이사냥도 구경하고, 특히 이번 여름엔 일가친척들이 모두 우리집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과천의 장미공원(ROSE GARDEN)에 가서 함께 사진찍고 쾅쾅 내려쪼이는 햇살도 아량곳 하지않고 한광을 놀다가 온 일도 있었다.

과천에서 오래살다보니 점점 더 매력을 느끼며 이런 아름다운 지역에서 살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